

공연 화두는 '동시대성·아시아성'

ACC, 올해 창·제작 라인업 공개
'이토록 무르익은...' 등 24편
어린이·SF, 5·18 등 주제 다채
누리집·유튜브 채널서 소개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속삭임의 식탁', '대리된 존엄', '거의, 인간', '나는 광주에 없었다', '제비 노정기', '아시아 3부작' ...

올해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가 다채로운 창·제작 공연을 선보인다.

ACC가 20일 공개한 올해 창·제작 라인업은 공연 8편, 시범공연 16편 등 모두 24편의 작품이 포함됐다.

공연사업과 정하나 연구사는 "예술극장에서 펼쳐지는 올해 공연에는 고선웅, 양정웅 등 국내 정상급 장인 연출가 외에도 김수희(연극), 유선후(무용) 등 동시대 이야기를 의미있게 형상화한 연출가들이 함께 한다"며 "동시대성과 아시아성 등을 주제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5월 어린이 주간에는 3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용이 되지 못했지만 이무기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을 비롯해 불 대신 꽃을 뿜어대는 용의 이야기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전쟁으로 헤어지게 된 친구를 찾는 이야기 '슈레야를 찾아서' 등이 펼쳐진다.

'식탁'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있다. 지난해 '식탁과 기억'을 주제로 시범공연을 거친 '속삭임의 식탁', '파인 다이닝' 두 편이 6월 관객을 찾아온다.

안무가 유선후의 작·연출작인 '속삭임의 식탁'은 '혼합' 문화를 다루는 무용극이며 김미란 작·연출의 연극 '파인 다이닝'은 경양식 요리사였던 연출자 본인 아버지의 직업을 풀어냈다.

한여름인 7월과 8월에는 더위를 식혀줄 SF 시리즈가 찾아온다. '대리된 존엄', '거의, 인간'은 미래 사회 닥쳐올 '인공자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ACC는 올해 창제작 작품 24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제작한 '나는 광주에 없었다'.

인기작품의 재공연과 10주년을 기념한 시범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완성한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무대에 오른다. 다양한 각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재현했으며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고선웅 연출 특유의 목격하면서도 울림있는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2025년은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다. 10주년 기념작 시범공연인 '제비 노정기'와 '아시아 3부작'이 그것. 전자는 '제비 노정기'는 '범 내려온다'를 남긴 '드라곤 킹(수궁가 기반)'과 기술융합의 '두 개의 눈(심정전 기반)'에 이은 ACC 판소리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다. 전통성, 대중성을 아우르는 작품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3개국 3명 연출가가 참여한 '아시아 3부작'은 아시아에 대한 세 개의 시선을 구현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3인방이 완성해내는 아시아 지도

는 그 자체로 흥미롭다.

올해도 대중친화 프로그램은 관객들을 찾아간다. 국내외 우수 공연작품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수요극장'(매월 1·3주 수요일), 아시아 최대 블랙박스 극장의 무대기술을 체험하는 '신비한 극장'(3월과 8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12월)가 펼쳐진다.

누구나 공연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공모전도 예정돼 있다. '제4회 ACC 아시아 스토리 공모전'이 그것. '당신의 꿈을 나눠주세요'라는 주제로 개인의 꿈, 공동체의 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올해는 동시대와 대중성을 두루 감안해 라인업을 구성했다"면서도 "아울러 ACC 예술극장의 미래를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 등도 고민했다"고 밝혔다.

ACC 창·제작 라인업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막막함, 고통스럽지만 시작할 힘을 주죠"

강진 출신 김수목 시인 '막막함이 나를 살릴 것이다' 펴내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다니면서 가깝았던 충장로, 금남로, 동명동 등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몰라보게 너무 많이 변해버렸지요. 제 머릿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광주는 여전히 제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사춘기와 청춘기 등 빛나던 한때를 보낸 곳이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생각은 남다른 수밖에 없어요."

김수목 시인의 광주에 대한 단상은 아련한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 있다. 김수목이 풍부하고 예민하던 때 거주했던 곳이라 항상 애착이 간다.

김수목 시인이 이번에 다섯 번째 시집 '막막함이 나를 살릴 것이다'(길은 사람)를 펴냈다.

작품집은 '심야버스', '붉은가슴딱새', '빈 술병이 쓰러져 우는 시' 등 연륜이 묻어나는 시들을 담고 있다.

강진에서 태어난 시인은 초등, 중교, 대학교를 광주에서 보냈다. 교대를 나와 경기도 등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남도를 그리워했다.

특히 시인은 "풍광이 아름답고 차분하게 안기는 느낌을 주는 강진의 자연은 여느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고 했다.

이번 작품집의 키워드는 '막막함'이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막막함은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시인은 "산다는 것은 고통과 막막함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삶은 맛이 없다"며 "인생이란 파도처럼 날뛰기를 하는 순간이 많다. 고통 한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밀바닥에 있을 때 다시 차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견지하면 언젠가 밝은 날을 만날 수



이란을 여행했을 때의 모습.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막막함이 나를 살릴 것이다// 발부리에 차인 돌맹이를 주워 던지며/ 그리워할 사람이 없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중략)// 슬픔은 어둠이 흔들어 깨워/ 아침이면 유리창에 기대어/ 딱새를 기다리게 하는 것"

표제시 '막막함이 나를 살릴 것이다'에서는 근원적인 삶의 외로움, 보헤미안적 기질 등이 느껴진다. "슬픔은 어둠이 흔들어" 깨우기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을 준다는 의미가 깊게 다가온다. 시인은 여행을 좋아해 지금까지 50여 개국을 다녔다. 작년까지는 유럽에서 4년간 거주했으며 산티아고 순례길을 두번이나 걷기도 했다. "네팔이나 파키스탄 오지 등에서도 살았는데" 그러한 여정이 창작이나 시적 소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수목 시인은 2000년 '문학과정'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바그다드 카페', '슬픔계량사전', 산문집 '지중해를 전전하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향기 그윽한 봄밤 '인문학 여행'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다음달 113기 정기 강좌

'민주시민교육', '맑스세미나', '하루키워드', '인문학시' ...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가 4월에 진행되는 113기 강좌를 개설했다. 참여형 강좌를 모토로 하는 시민인문학은 매월 다채로운 강좌로 시민들을 만나왔다. 전남대 카페 노블이며 오후 2시.

월요일(8, 22일)에는 '몸 언어 철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체험주의: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3, 17일)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신광용 책임연구원이 '토론기법: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나누며 '맑스세미나'인 목요일(11, 25일)은 위상복 전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레닌 '국가와 혁명' 강독'을 진행한다.

금요일(12, 26일) '하루키워드'를 모티브로 펴

쳐지는 시간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시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밤'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일요일 진정한 이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시'는 당일치기로 남도를 여행하며 당일 공지된다.

아울러 밤 시간에 카페 노블에서 진행되는 명혜영인문교실은 '에코페미니즘'(4월 1일 개강), '문학의 메타포', '영화인문학', '베르그송강독', '50+인생, 에세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신우진 이사장은 "이번 113기 정기강좌도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며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승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춤 배우며 '흥'에 취하는 시간

전남도립국악단, 29일까지 '우리춤 배우기' 참가자 모집

우리 가락과 우리 춤을 배우며 전통 신명을 향유하는 시간.

전남도립국악단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4년 제1기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4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10회(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판소리, 가야금, 대금, 한국무용 및 장구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중급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또는 7시에 진행된다.

강의는 전남도립국악단 단원이 국악단 연습실(남도소리유희터 3층)에서 진행한다. 가야금 및 대금은 개별로 준비해야 한다.

국악단 전수진 담당자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가락과 춤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며 "남도회원, 풍류회원에게 한해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문 및 홈페이지 접수. 수강료 6만원(총 10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